

#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관한 연구

## Expenditure Adequacy of Elderly Households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강 사 양 정 선\*

석사과정 김 영 순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Yang, Jung-Sun

Master Course : Kim, Young-Soo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expenditure adequacy of elderly household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2002 House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hich is consisting of a sample of 918 elderly households. Expenditure adequacy was investigated by the Spending to Income ratio and Expenditure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ratio.

The results showed that 48% of households spent more than 100% of their taken-home income or less tha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expenditure adequacy. Gender, age, education, job status, family size, and level of incom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Spending to Income ratio and Expenditure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ratio. Family size had negative effect on expenditure adequacy, householder's job status and the level of income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it.

---

▲주요어(Key Words) : 노인가계(elderly households), 지출적정(expenditure adequacy), 초과지출(spending to income ratio), 지출충분성(expenditure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raio)

### 1. 서 론

과학의 발달과 보건기술 및 환경의 개선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노인인구는 절대적 수와 함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00년에 75.9세였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1년이 걸렸

고, 일본은 24년으로 매우 짧았으나 우리나라는 이보다도 짧은 19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통계청, 2001).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 후기 노인의 증가는 연금 수급기간의 연장, 노인 의료비의 증대, 노인부양의 부담증가 등 여러가지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요즘은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모선희·강지현, 2002).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번영과 안정을 위주로 하는 가족주의에서 개인의 삶과 인격을 우선시 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생각과 태도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통계청의 2003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노부모 봉양과 관련된 지난해 조사 결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0명에 7명 꼴(70.7%)로 지난 1998년의 10명에 9명 꼴(89.9%)보다 크게

---

\* 주 저 자 : 양정선 (E-mail : jsyang1120@hananet.net)

줄어들어,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는 반대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려는 자녀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세태를 반영해 스스로 생계를 부양하려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 자신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는 노인은 지난 1998년 41.6%에서 2002년에는 46.3%로 4.7%포인트 늘어났으며,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도 45.8%에 이른다(통계청, 2003)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를 뒷받침할 노인들의 수입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의 청년층의 월급을 100으로 할 때 60세 이상 남자의 월급은 2001년 108.1에서 2002년에는 98.9로 줄었고, 여자는 84.9에서 71.8로 급격히 떨어졌다(통계청, 2003). 더욱이 평생직장의 개념이 흔들리면서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의 인위적인 요소로 인하여 직업안정성이 약화되었고, 아직까지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미발달로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연령과 은퇴시기 사이의 일정한 시간적 격차가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은퇴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위기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택룡, 1994).

그에 따라 은퇴 후에도 은퇴 이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보유는 중년기·노년기를 전후로 한 가계의 중요 재정적 목표로 부각되었다.

가계의 실제 경제상태를 평가하고자 할 때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은 총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더 나은 지표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총소비지출은 소득에 비해 일시적인 요소(transitory factors)에 의해 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 혹은 은퇴기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소득에 관한 연구보다 노년기의 경제적 복지상태를 평가하는데 더 정확할 수 있다(Wang, 1995 ; 여운경, 2003에서 재인용). 또한 지출의 분석은 절대액수에 기초할 경우 가계간 비교가 불충분하며 각 가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Crystal & Shea, 1990), 각 가계의 소득에 근거하여 지출의 정도를 보여주는 초과지출(소득대비 지출 비율)과 각 가계의 최저생계비에 근거하여 지출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출충분성(최저생계비 대비 지출 비율)으로 노인가계의 특성과 요구 차이에 따른 지출적정을 살펴볼 수 있다. 노인가계의 지출적정 연구는 노인가계의 현재 경제적 복지상태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상태를 예측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지출이 부적정한 수준에서는 미래의 낙관적인 경제상태를 예상하기 힘들고, 지속적인 빈곤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노년기의 빈곤은 젊은시절의 빈곤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이 시기의 빈곤은 극복될 수 없으며 기회도 상실되어 만성적으로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정우·김형수, 1996).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노년기를 대비한 각 개인의 노후설계는 무엇보다도 노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이가옥 외, 1994 ; 양세정·성영애, 2001에서 재인용), 노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

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지출규모 및 지출적정 분포를 살펴보고,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른 차이 및 지출적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가계의 지출적정도 측정

노인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노인가계의 분류는 연구목적에 따라 55세에서 65세 사이를 기점으로 나뉘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노인관련 연구에서 노령선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은퇴 또는 직업노동의 단절과 같은 사회활동의 단절을 들 수 있으며, 또는 조부모가 되는 시기, 신체적인 의존성의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 등을 들고 있다(서병숙, 1993 ; 임춘식, 1995 ; 양세정·성영애, 200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을 분석하는 것에 그 연구목적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회적 노동이 단절되는 시기인 55세 이상을 노인가계로 분류하였다. 노인가계를 가구주 연령 55세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1991)에서 노인의 기준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55세가 사회적 노동의 단절을 의미하는 정년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은 소득과 지출의 관계, 그리고 최저생계비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이중 소득은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정상태 분석 도구로서(Radner, 1987 ; Ycas & Grad, 1987 ; Grad, 1990 ; Hong & Swanson, 1995에서 재인용), 자료의 획득이 비교적 용이하고, 일정시점에서 부의 훼손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측정되므로 잠재적 구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Smeeding, 1988 ; Hurd, 1990 ; Grad, 1990 ; Radner, 1987, 1990 ; 김연정, 1998에서 재인용). 반면 소득원천의 평가절상이나 절하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정시점에서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며(Cutler & Katz, 1992 ; 김태성, 1995), 봉급소득이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되는 것과 달리 사적연금 소득이나 이자 소득과 같은 비근로소득의 경우는 정확하지 않은 하향보고가 문제시 된다(Radner, 1982 ; Jenks, 1987 ; 김연정, 1998에서 재인용).

가계의 소득 중에서도 현재소득보다는 항상소득이 복지를 결정하며, 또한 금전소득 이외의 비금전소득을 통해 생활이 유지되기도 하므로, 실질적인 가계복지의 수준은 소비를 통해 달성된다는 관점에서 경제적 복지 측정을 위한 분석대상으로서 소비지출의 중요성이 주장되기도 한다(Friedman, 1956 ; Modigliani & Brumberg, 1962 ; 김연정, 1998에서 재인용). 문숙재 외(1996)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소비지출 수준이 비노인

가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희숙·신상미(2003)의 연구에서는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비지출 수준이 취업노인가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1인당 지출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충분성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겨우 벗어나는 수준을 보였다.

가계의 실제 경제상태를 평가해주는 측정도구로서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나은 지표라는 항상소득가설에 입각하여, 노인가계가 적정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 기초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계의 지출적정은 산술적 지랑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 구성원의 요구만족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계의 특성을 고려한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태 초과지출 척도와 지출충분성 척도는 각 가계의 소득 및 가계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출적정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초과지출은 각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로서 1.0을 넘는 경우 초과지출로 볼 수 있다. 이 비율이 1보다 작은 경우 가처분소득이 월평균 소비지출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순 흑자를 의미하며, 1보다 큰 경우 현재의 생활비 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부가적인 소득원이나 초과수당, 유동자산의 인출, 추가적인 신용의 사용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초과지출 비율이 1.0을 약간 선회한다 하더라도 안전한 소득원천이 보장된다면 초과지출 자체가 재정적 목표를 향한 일시적인 재무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Lytton, Garman & Porter, 1991). 하지만 노인가계의 부채는 미래의 높은 기대소득을 예상하고 현재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초과지출의 의미와는 다르므로 가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가설에서 제시하는 은퇴이후의 부(負)의 저축은 최근의 많은 실증연구 결과에서 지지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유산에 대한 동기와 기대수명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해석되고 있다(Hurd, 1987에서 재인용). 따라서 일반적인 준거기준으로 사용되는 1.0이하를 노인가계에도 권고하게 되며, 이는 최소한, 소비지출이 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적절함을 의미한다.

한편 지출충분성 척도는 가계균등성지수(equivalence scale)를 고려하여 산출된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지출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즉, 가계의 총지출을 가구당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으로, 1.0을 초과하면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이상을 지출하는 가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97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KHPS)를 분석한 정순희·김현정(2002)의 연구에서는 비취업 노인가계의 평균이 1.51, 취업 노인가계의 평균이 1.87로 나타났으며, 2000년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한 이희숙·신상미(2003)의 연구에서는 은퇴 노인가계가 1.1, 취업 노인가계가 1.4로 나타났다.

초과지출 척도와 지출충분성 척도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생계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지출적정의 일 기준이 될 수 있다.

## 2. 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분석한 양세정·성영애(2001)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월평균소득이 비노인가계에 비하여 낮은수준을 보였으며, 소득원천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이희숙·신상미(2003)의 연구에서는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득과 1인당소득은 취업노인가계의 58.9% 정도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은퇴노인가계의 소득 유형 중 이전소득은 연평균 37.1%의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인 반면, 취업노인가계는 4.0%의 낮은 구성비율을 나타내어 은퇴노인가계의 상대적인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은퇴노인가계의 소득의 충분성은 현재 지출수준과 최저생계비수준을 겨우 감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한 김연정(1998)은 소득과 지출, 자산 구성비율을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에 따른 변화를 추론하면서, 은퇴이후에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자산소득이 증가하며, 이전소득 중 사적 이전소득인 친지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여 은퇴 후 노인가계의 안정적인 소득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편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적 이전소득은 은퇴이전 가계와 비교했을 때 소득원천 비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선형·김근홍(2003)은 통계청의 1999년도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노인가계의 이질성 분석을 통하여 노인집단의 유형을 구분해보고자 하였다. 노인가계의 지출구조에서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였고,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앵겔계수가 높아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지출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계지출의 패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건강과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윤경(2003)은 노인가계를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소비패턴의 차이를 규명하고 두 집단의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함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노인부부가계의 소비지출함수일 경우 소득, 교육수준, 과소비, 순자산, 무직, 도시거주, 연령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노인독신가계의 소비지출함수에서는 소득, 과소비, 연령, 순자산, 교육수준, 무직, 도시거주의 순이었다. 즉,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 모두에서 소득수준, 과소비행동, 순자산, 교육수준은 소비지출함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은퇴가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안종범·전승훈(2002)의 연구에서, 은퇴는 가구 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가구의 경우 은퇴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소비가 감소하는 연령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가구 부양원 수의 감소, 교통 통신비의 감소, 보건의료비의 증가 등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은퇴 직후 소비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이는 은퇴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편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은퇴 전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은퇴 전 소비수준이 높은 경우, 은퇴원인이 조기퇴직, 명예퇴직인 경우에 은퇴 후 소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적응에 관한 모선희·강지현(2002)의 연구에 의하면 노후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활비 지출 중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식비가 30.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의료비 22.8%, 각종 빛의 원리금 상환 19.4%, 주거비 15.5%, 교육비 12.9%의 순이었다.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가 19.4%이고 반대로 가계에 부담이 느끼는 항목이 없다가 10.8%여서 조사대상자의 경제적인 형편이 각기 상이함을 보여준다.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여유(0.2%)있거나 여유(6.0%)있는 경우는 적고 과반수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이 조금 어려움(29.8%) 또는 매우 어려움(26.0%)이라고 응답해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상태는 나이, 은퇴기간, 가구구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숙(2000)은 노인가계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를 분석하여 각각의 패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특성상 동질적 집단인지 아니면 이질적 집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들은 동일한 특성을 지닌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특성이 상이한 이질적 집단이며 각 집단의 필요와 욕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노인이나 병약형 또는 주거비지배형 노인 등과 같은 취약노인 집단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소비항목은 보건의료비와 주거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구성별(정영숙, 2000 : 정순희·김현정, 2002), 가구주연령(김순미, 1998 : 여운경, 2003), 가구주교육수준(정순희·김현정, 2002 : 여운경, 2003), 가구원수(안중범·전승훈, 2002), 가구주취업여부(Moehrle, 1990 : 이선형·김근홍, 2003), 배우자유무(심영, 2000), 자녀동거여부(양세정·성영애, 2001), 거주지역(정순희·김현정, 2002 : 여운경, 2003), 주택소유형태(정영숙, 2000), 가계소득(이희숙·신상미, 2003 : 여운경, 2003 : 정영숙, 2000)이 노인가계의 지출과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지출적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가계의 가치분소득과 지출규모 및 지출적정도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른 가치분소득과 지출규모 및 지출적정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02년 도시가계조사로서 이는 전국의 전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서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2002년 월평균 5,017 가구를 매월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1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된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실기체된 가계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관한 연구이므로 총 3,981가구 중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노인가구인 918가구를 추출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 변수의 정의 및 분석방법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은 초과지출 여부와 지출충분성 여부로 분석하였다. 초과지출은 Lytton, Garman & Porter(1991)가 제시한 가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 가치분소득)로서 파악하였으며, 이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즉 초과지출하지 않는 경우를 지출적정(vs 지출부적정)인 것으로 본다. 이때 가치분소득은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각종 세금, 연금 및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소득(통계청, 2003)을 말하며, 소비지출은 가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로서 각종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로 구성된 10대 비목 지출의 합계(통계청, 2003)를 말한다.

지출충분성은 선행연구(정순희·김현정, 2002 : 이희숙·신상미, 2003)에서 사용한 최저생계비 대비 가계총지출의 비율(가계총지출/최저생계비)로서 파악하였다. 최저생계비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적용하였고, 가계총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계인 가계의 총지출이다.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출충분성이며, 1.0 미만인 가계는 지출불충분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때 1.0을 초과하는 지출충분성을 지출적정(vs 지출부적정)으로 파악한다.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고, 지출적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선별하였는데, 즉 가구구성별, 가구주연령,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취업여부,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 가구원수, 가계소득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가치분소득과 지출의 규모 및 적정도 분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값 및 4분위로 살펴보고,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른 가처분소득과 지출규모 및 적정도의 집단간 평균적 차이에 대한 검증은 t-검증과 분산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2002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원)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자료 : 보건복지부(2001. 12)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인 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가구주 가계가 78.54%였으며 65세 이하인 경우가 68.2%를 차지하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초대졸 이상인 경우가 약 18%였으며, 취업노인 가계가 61%로 비취업노인 가계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87.58%였으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가계는 전체의 약 63%에 해당한다. 서울지역 거주는 약 19% 정도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약 84%였다. 가구원수는 평균 2.95명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약 1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형 변수	빈도(N=918)	구성비(%)
가구주 성별	여성	197
	남성	721
가구주 연령	55세-59세	351
	60세-64세	275
	65세-69세	163
	70세 이상	129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272
	중졸	218
	고졸	263
	초대졸이상	165
가구주 취업여부	없음	358
	있음	560
배우자유무	없음	114
	있음	804
자녀동거여부	비동거	340
	동거	528
가구원수	2명	404
	3명	282
	4명	138
	5명 이상	94
거주지역	서울	177
	서울이외 지역	741
주택소유형태	무주택	149
	주택소유	769
연속형 변수		평균
가구원수 (명)		2.95
가계소득 (천원/월)		1,990.12
		표준편차
가구원수 (명)		1.12
가계소득 (천원/월)		1,468.00

2. 노인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지출규모 및 지출적정도

노인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지출규모 및 지출 적정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노인가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744,908원이었으며, 총지출은 약 1,868,726원으로 나타났다. 도시가계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 가처분소득은 2,433,400원이었고, 가계지출은 2,135,900원(통계청, 2003)으로 나타나 소득은 전체가계의 72%에 해당되고 있는 반면 지출은 87%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가계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가계의 가계지출은 2,168,138원으로, 이는 하위 25%에 해당하는 가계의 약 2.6배 만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인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지출규모 및 지출적정도

항 목	25%	50%	75%	전체	S.D.
가처분소득	822,083	1,465,750	2,380,520	1,744,908	1,565,784
총지출	838,040	1,349,480	2,168,138	1,868,726	2,287,819
소비지출	766,380	1,202,050	1,884,470	1,623,505	1,901,476
초과지출	0.58	0.81	1.17	1.22	16.66
지출충분성	1.21	1.82	2.69	2.42	3.05

노인가계의 소비지출 평균은 1,623,505원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도시가계 전체의 소비지출 평균인 1,826,900원(통계청, 2003)의 약 89%에 해당한다. 하위 25%와 상위 25%의 소비지출을 비교해보면, 약 2.5배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는 도시가계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약 2.0배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분석결과(양정선, 2003)와 비교해볼 때, 지출의 계층간 불평등이 노인가계에서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지출적정을 보여주는 초과지출(소비지출/가처분소득)은 평균 약 1.2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가계가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20%를 초과지출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출충분성 (가계지출/최저생계비)은 평균 2.4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약 2.4배를 지출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정순희·김현정(2002)의 연구에서 취업노인의 지출충분성이 1.87이었고, 이희숙·신상미(2003)의 연구에서 1.4였던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자료인 도시가계연보가 1인 단독가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배우자와 자녀 없이 혼자 독거하는, 즉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인단독가구의 자료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출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려된다.

3. 노인가계의 지출적정 가계 분포

<표 4>를 살펴보면,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초과지출 가계가 본 분석의 표본 중 34.6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6.23%의 노인가계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과지출을 하면서 동시에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는 열악한 경제환경의 노인가계는 3.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적정을 초과지출과 지출충분성의 척도로 살펴볼 때 지출이 적정한 가계, 즉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하는 노인가계는 전체표본의 52.40%를 차지하였으며, 지출이 부적정한 가계, 즉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거나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는 가계는 47.60%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 안정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경제적 안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노인가계의 지출 적정 가계 분포

항 목	지출충분한 가계	지출불충분한 가계	전 체
초과지출 하는가계	288(31.37%)	30(3.27%)	318(34.64%)
초과지출 않는가계	481(52.40%)	118(12.96%)	600(65.36%)
전 체	769(83.77%)	149(16.23%)	918(100%)

#### 4.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른 가처분소득과 지출규모 및 지출적정도

<표 5>는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라 가처분소득과 지출규모 및 지출적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가구주 성별은 가처분소득과 지출의 규모 및 지출적정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는데, 남성가구주 노인가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약 1,851천원으로 여성가구주 노인가계의 약 1,357천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가구주 노인가계의 평균 가계지출은 약 1,747천원이었던 것에 반해 여성가구주 노인가계의 평균 소비지출은 약 1,169천원으로 나타나 남성가구주 가계 소비지출의 67%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은퇴 노인의 가구주 성별이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는 안중범·전승훈(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초과지출의 차이는 발견되지 못하였으며, 지출충분성은 남성가구주 노인가계가 평균 2.59인 반면 여성가구주 노인가계는 1.80으로 나타나 남성가구주 가계의 지출이 최저생계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충분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표 5>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른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및 지출적정도

변 수		가처분소득(천원)			소비지출(천원)			초과지출			지출충분성		
		평균	D	t/F	평균	D	t/F	평균	D	t/F	평균	D	t/F
성별	남	1,851			1,747			1.27			2.59		
	여	1,357		-13.68***	1,169		-13.21***	1.02		-0.65	1.80		-11.26***
가구주 연령	55~59세	2,137	a		1,954	a		0.81			2.82	a	
	60~64세	1,871	b	303.34***	1,757	b	143.38***	1.28		1.69	2.56	b	75.10***
	65~69세	1,337	c		1,173	c		1.75			1.90	c	
	70세이상	927	d		1,011	d		1.51			1.71	d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1,184	d		1,132	d		1.82	a		1.77	d	
	중졸	1,581	c	382.11***	1,452	c	202.50***	0.78	b	2.16	2.11	c	167.76***
	고졸	1,947	b		1,802	b		1.07	ba		2.63	b	
	전문대졸이상	2,562	a		2,374	a		1.03	ba		3.58	a	
취업 여부	취업	2,043			1,825			0.88			2.66		
	비취업	1,277		-25.79***	1,307		-14.06***	1.74		2.63**	2.05		-10.37***
배우자 유무	유	1,798			1,680			1.22			2.49		
	무	1,370		-9.51***	1,227		-8.28***	1.18		-0.09	1.93		-6.38***
자녀동거 여부	동거	2,081			1,919			0.95			2.48		
	비동거	1,172		-30.66***	1,120		-21.75***	1.67		2.22*	2.33		-2.54*
가구 원수	2인	1,152	d		1,106	d		1.60			2.27	b	
	3인	1,932	c	641.56***	1,746	c	307.63***	1.06		1.89	2.55	a	7.43***
	4인	2,241	b		2,181	b		0.55			2.50	a	
	5인이상	3,007	a		2,664	a		1.02			2.57	a	
거주 지역	서울	1,952			1,711			1.00			2.49		
	서울외	1,695		-6.79***	1,603		-2.36*	1.27		0.67	2.41		-1.14
주택소유 형태	주택소유	1,862			1,722			1.23			2.57		
	무주택	1,140		-18.12***	1,117		-12.39***	1.15		-0.17	1.68		-11.36***

\* p<0.5 \*\* p<0.1 \*\*\* p<.001

D :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 여성가구주 노인가계는 소득과 지출의 절대액수가 남성가구주 노인가계에 비해 월등히 적고, 그로 인해 지출이 불충분한, 즉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과 가처분소득 및 소비지출의 절대액수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 연령이 증가할 수록 지출의 액수는 감소하였다는 선행연구(김순미, 1998 ; 안중범·전승훈, 2002)의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55-59세의 노인집단은 70세 이상의 노인집단보다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이 2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 집단에 따른 초과지출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지출충분성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 수록 경제적 복지수준이 열악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가처분소득 및 소비지출의 절대액수 그리고 지출충분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지출충분성의 경우 초졸이하 집단과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 간에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주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소비수준을 높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선행연구(여운경, 2003 ; 안중범·전승훈, 2002)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노인가구주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 비취업인 노인가계보다 소득과 지출규모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한 노인가계의 초과지출은 0.88인 반면, 비취업인 경우 1.74로 나타나 지출이 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경제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취업인 경우보다는 취업한 노인가계의 지출충분성이 비취업인 노인가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가계가 경제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취업노인의 가계수지가 모든 면에서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유의미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 평균적으로 적자, 즉 초과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양세정·성영애,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배우자가 존재하는 노인가계는 소득과 지출의 절대액수 및 지출충분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노인가계의 배우자 유무는 노인의 경제적 상태를 결정하고 나아가 소비지출 구조를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선행연구(문숙재 외, 1996 ; 양세정, 2000 ; 심영, 2000 ; 여운경, 2003)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가계일 경우 동거하지 않는 노인가계보다 소득과 지출이 유의미하게 더 많았고, 노인 단독세대인 경우 초과지출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지출충분성도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단독세대는 자녀동거 세대보다 경제적 복지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구원수가 증가할 수록 소득과 지출의 절대액수는 증가하였고, 지출충분성의 경우 2인 가계와 3인이상의 가계로 이분되는 특성이 있었다. 즉 가구원이 2인인 가계보다는 3인인 가계의 지출충분성이 유의미하게 컸으나 그 이후로 가구원수가 증가하여도 지출충분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소득과 지출의 절대액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지출과 지출충분성에는 무관한 결과를 보였다. 주택을 소유한 노인가계는 무주택 노인가계보다 소득과 지출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고, 무주택자보다 지출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에 있어서 주택소유는 높은 지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5.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지출적정을 중심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초과지출하지 않는 경우를 1, 초과지출 하는 경우를 0으로 주었고, 지출충분성의 경우 지출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만큼 충분한 경우 1, 그렇지 못한 경우를 0으로 주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검증결과 그 적합성이 입증되었고(초과지출 Model Chi-Square=1399.559 p<0.001 ; 지출충분성 Model Chi-Square=3164.725 p<0.001), 모델이 관찰치를 정확히 예측한 비율은 각각 73%, 87.7%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노인인 가계보다는 남성노인 가계가 초과지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지출충분성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충분한 지출을 확률이 여성노인 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남성노인 가계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그로 인해 소비성향도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노인 가구주 가계에는 지출불충분성의 위험이 그리고 남성노인 가구주 가계는 초과지출의 위험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55-59세의 노인집단보다 65-69세의 노인 가계가 초과지출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적게 나타났고, 지출충분성에 있어서는 65-69세의 집단과 70세 이상의 노인가계가 준거 집단보다 지출이 최저생계비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55-59세의 노인집단에서는 은퇴 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은 감소하였으나 소비의 수준은 소득만큼 감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초과지출이거나 혹은, 아직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이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초과지출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노인초반기에는 초과지출의 위험이 크고 노인후반기로 가면 자신들의 건축재정에 의해 초과지출의 위험은 줄어들지만 절대적인 지출의 부족에서 오는 지출불충분성의 위험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교육수준이 초졸이하나 중졸집단인 경우 고졸집단에 비해 초과지출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집단보다 초과지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초과지출의 가능성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재산소득을 포함한 가계소득이 높아지겠으나 소득의 증가폭보다 지출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은퇴 후 소비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안종범·전승훈(2002)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초졸이하, 중졸, 전문대졸이상의 집단 모두 고졸집단에 비해 지출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초과지출의 위험이 높아지며, 고졸을 중심으로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지출불충분성의 위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과지출의 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지출이 최저생계비에 못할 가능성도 증가하였다. 노인가구주가 취업한 경우 비취업 가구주보다 초과지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적게 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충분한 지출을 할 확률이 높았다. 배우자유무는 초과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출충분성에는 부적인 영향력을 미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계보다 배우자가 존재하는 노인가계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계가 단독세대보다 초과지출의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 가구원수, 배우자의 유무, 그리고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지출적정에 미친 영향은 앞서 분석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와는 다소 상이한데, 이는 다른 모든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노인가계의 가구원수 증가가 소득의 증가보다는 지출의 증가를 더 크게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계는 서울의 노인가계에 비

해 지출의 절대액수가 부족할 수 있는 지출불충분성의 위험이 더 높았다. 한편 주택을 소유한 가계는 무주택자에 비해 지출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초과지출의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며, 지출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가능성을 증가시켜, 초과지출과 지출불충분성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인들의 영향을 종합하여볼 때, 지출부적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구원수였다. 본 분석에서 가구원수의 증가는 초과지출의 위험과 지출불충분성의 위험을 함께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한편 초과지출의 위험을 낮추면서 동시에 지출불충분성의 위험도 함께 낮출 수 있는 요인은 노인가구주의 취업과 가계소득이었다. 즉 노인가구주가 취업했을 경우, 또는 다양한 소득원천에 의해 가계소득이 많은 경우 지출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지출규모 및 지출적정 분포를 살펴보고,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른 차이 및 지출적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가계의 지출규모 분포를 살펴본 결과 상위계층과

<표 6>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 변수	초과지출			지출충분성			
	B	S. E.	Exp(B)	B	S. E.	Exp(B)	
남성(여성)	-0.318***	0.072	0.728	0.609***	0.091	0.544	
가구주연령 (55-59세)	60-64세	0.100	0.055	1.105	-0.022	0.092	1.022
	65-69세	0.462***	0.070	1.588	-0.523***	0.098	1.687
	70세 이상	0.122	0.077	1.130	-0.475***	0.104	1.609
가구주교육수준 (고졸)	초졸이하	0.417***	0.063	1.517	-1.003***	0.094	2.725
	중졸	0.411***	0.061	1.509	-0.828***	0.098	2.288
	전문대졸이상	-0.256***	0.068	0.774	-0.574***	0.130	1.775
가구원수	-0.228***	0.031	0.796	-0.454***	0.051	1.574	
취업(비취업)	0.175***	0.051	1.191	0.262***	0.075	0.770	
배우자유(무)	0.091	0.091	1.095	-0.679***	0.126	1.972	
자녀동거(비동거)	-0.180*	0.070	0.835	0.132	0.106	0.876	
서울(서울 이외지역)	-0.101	0.055	0.890	0.711***	0.094	0.491	
주택소유(무주택)	-0.052	0.058	0.904	0.597***	0.074	0.551	
가계소득	8.1E-7***	2.8E-8	1.000	2E-6***	7.4E-8	1.000	
상수	-0.214	0.118		0.648***	0.171		
-2 Log Likelihood	14214.039			9750.671			
Chi-square	1399.559***			3164.725***			

\* p<0.5 \*\* p<0.1 \*\*\* p<.001



하위계층의 격차가 2.5배 이상 벌어졌으며 지출의 계층간 불평등이 노인가계에서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지출적정을 초과지출과 지출충분성의 척도로 분석할 때 지출이 적정한 가계, 즉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하는 노인가계는 전체표본의 52.40%를 차지하였으며, 지출이 부적정한 가계, 즉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거나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는 가계는 47.60%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 안정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경제적 안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른 지출규모 및 지출적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여성노인인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환경에 처해있었으며, 노인 가구주의 연령증가는 경제적 복지상태의 열악함으로 이어졌고, 교육수준은 높은 소비수준과 관계가 있었다. 노인의 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은 초과지출의 위험과,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지출불충분성의 위험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역은 지출적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출의 절대 액수 및 지출의 충분성을 증가시키는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보여주었다.

셋째, 지출적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가구주 노인가계가 건축재정에 의해 초과지출의 위험은 회피하고 있었으나, 지출불충분성의 위험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주의 연령 역시 지출적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노인초반기에는 초과지출의 위험이 크고 노인 후반기로 가면서 초과지출의 위험은 줄어들지만 절대적인 지출액수의 부족에서 오는 지출불충분성의 위험이 내재해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초과지출의 가능성은 증가하였고,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고졸집단의 노인가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지출충분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 배우자의 존재, 그리고 자녀와의 동거는 다른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지출부적정과 관련이 있었으며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이 아니었다. 서울거주인 노인가계와 주택을 소유한 노인가계는 준거집단에 비해 지출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노인의 취업과 가계소득은 초과지출의 위험을 낮추면서 동시에 지출불충분성의 위험도 함께 낮출 수 있는 변인이었다. 즉 노인가구주가 취업했을 경우, 또는 다양한 소득원천에 의해 가계소득이 많은 경우 지출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 및 정책적 제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지출이 부적정한 가계(437가계, 전체 표본의 약 48%) 중 초과지출을 하고 있는 노인가계(318가계, 전체 표본의 35%)는 약 73%로서 이들 가계는 기본적인 재

무교육을 통해 문제를 줄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자료의 한계상 자산소유 현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처럼 기대수명이 길어진 현실에서 축적된 자산이 많아 초과지출이 문제시되지 않는 노인가계가 다수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예비노인들을 중심으로 노인기를 대비하는 자산의 유형변화 및 재무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들 교육은 은퇴준비 프로그램과 같은 생애교육을 통해 각 직장에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각종 영리단체의 교육을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실천적인 방법론의 모색이 시급하다.

둘째, 분산분석 결과 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들 변인이 지출적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이었으며,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이 아니었다. 즉 본 분석에서는 가구원 수, 동거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의 증가보다는 지출의 증가를 더 큰 폭으로 가져오는 변인이었다. 따라서 노인가계를 위한 정책입안 시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계가 모두 같은 동일집단으로 묶여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에는 큰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지출적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노인의 취업과 가계소득은 초과지출의 위험을 낮추면서 동시에 지출불충분성의 위험도 함께 낮출 수 있는 변인이었다. 즉 노인가구주가 취업했을 경우, 또는 다양한 소득원천에 의해 가계소득이 많은 경우 지출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퇴직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으면 노후생활은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소득에 의존하게 되는데, 서구에서는 노후생활비가 주로 연금에 의해 마련되나 우리나라는 아직은 공적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7%에 불과하며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실제로 고연령층이 재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 때문이지만 고령자의 재취업은 노화에 따른 능력 및 생산성의 감퇴, 사회구조적 차별, 법적 보호의 미약 등으로 어렵다(모선희·강지현, 2002). 따라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거리 기획과 고용창출이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노력해야할 우리들의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 접수일 : 2004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19일

【참 고 문 헌】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김연정(1998).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모선희·강지현(2002). 55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심영(2000). 단독가계 노인 소비자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 분석. 소비문화연구, 3(1), 121-145.
- 안종범·전승훈(2002). 은퇴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양세정·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양정선(2003). 가계의 초과지출 상태 및 관련변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1-14.
- 여윤경(200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패턴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12.
- 이선형·김근홍(2003). 노인 가계지출구조 분석을 통한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43-60.
- 이정우·김형수(1996). 노령근로자 조기퇴직의 폐해와 개선방향. 한국노년학, 16(1), 83-95.
- 이희숙·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6.
- 정순희·김현정(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13-122.
- 정영숙(2000). 노인가계의 소비패턴과 복지정책적 함의. 소비자학연구, 11(1), 59-74.
- 통계청(2001). 도시가계연보.
- 통계청(2002). 도시가계연보.
- 통계청(2003). 고령자통계.
- Crystal, S. & Shea, D.(1990).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6(3), 227-247.
- Hong, G. S. & Swanson, P. M.(1995). Comparison of Financial Well-Being of Older Women: 1977 and 1989. 『FCP』, 6, 129-138.
- Hurd, M. D.(1987). Savings of the Elderly and Desired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7(3), 298-312.
- Lytton, R. H., Garman, E. T. & Porter, N. M.(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CP』, 2, 3-25.
- Moehrl, T.(1990). Expenditure Patterns of the Elderly: Workers and Nonworkers. *Monthly Labor Review*, 113(5), 34-41.
- Radner, D. B.(1987). Money Incomes of Aged and Nonaged Family Units, 1967-1984. *Social Security Bulletin*, 50(8), 9-28.
- Radner, D. B.(1990). Assess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and Nonaged Using Alternative Income-Wealth Measures. *Social Security Bulletin*, 53(3), 2-14.